

첫삽 10년만에 올스톱... 北, 폐쇄수순 밟나

北 개성공단 잠정중단... 존폐여부 여지는 남겨

정부, 기존 '안정적 유지·발전' 입장 고수 주목

남북관계의 '최후 보루' 평화를 위한 '완충지대'로 평가받아온 개성공단 단이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지난 3일부터 개성공단 통행제한 조치를 취해오던 북한은 8일 5만3000여명에 이르는 북측 근로자의 철수와 개성공단 사업 잠정중단을 결정했다. 또 개성공단의 존폐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와 공단 사업의 잠정중단을 발표함에 따라 북측의 통행제한 조치 이후 근근이 버티어온 개성공단 업체의 가동은 당장 9일부터 전면 '올스톱'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3년 6월 공단 조성을 위한 첫 삽을 뜬지 10년 가까이만에 개성공단은 존폐의 갈림길에 서는 최대 위기를 맞은 것이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초강력 카드로 대남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성공단 통행제한과 잇따른 전쟁위기 고조, 미국에 대한 압박 등에도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자신들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자 더 강력한 카드를 꺼낸 것으로 관측된다.

북측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이미 지난 4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하

는 형식으로 "뚝뚝 입질을 계속해 시끄럽게 놀아낸다면 우리 근로자들을 전부 철수시키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면서 근로자 철수를 위협한 바 있다.

현재로서는 개성공단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폐쇄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존폐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면서 "이후 사태가 어떻게 변저지게 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근로자를 철수하고 사업을 잠정중단하겠지만 완전 폐쇄까지는 남측의 태도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측이 앞으로 근로자들을 복귀시키고 통행을 정상화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북측의 통행제한 이후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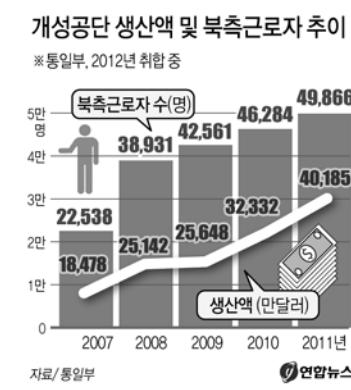
정부의 대응을 감안하면 개성공단이 정상화보다는 실제 폐쇄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는 북측의 통행제한에 대해 민간과 정치권의 당국 간 대화재거나 특과파견 요구에 대해 북측이 통행정 상화를 먼저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북측이 통행제한보다 더 상황을 악화시킨 마당에 정부가 기존 태도를 바꾸기는 더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많다.

그동안 개성공단의 안정적 유지, 발전 입장을 표명해온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의 운명에 대해 전면적 재검토를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북측이 위기를 더욱 고조시키면서 우리 내부에서도 당국간 대화나 특과파견에 대한 목소리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정부 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북한이 흑시라도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더라도 일단 멈춰선 개성공단은 뇌에 산소 공급이 중단된 환자처럼 상당한 후유증이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여야, '대북특사 파견' 찬반 논쟁

국회 외통위서... 정부 "대화할 분위기 아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8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는 대북특사 파견 문제를 놓고 여야의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민주통합당 문화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대북특사 파견을 공식 제안했고,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남북간 대화 재개를 위한 '대북특사 파견 검토론'이 제기되고 있는 흐름과 맞물려 특사파견 문제가 국회에서 공론화된 것이다.

새누리당 의원 상당수는 대북특사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시기에 대해선 유보적인 입장인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국면타개를 위한 시의적절한 카드라고 맞섰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북한의 위협에 우리가 굴복하는 시그널을 줄 수 있으므로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며 "선뜻 대북특사를 제안하면 북이

'사회사절단'이라고 하는 등 오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심화된 한반도 위기국면을 선제적으로 풀어가는 차원에서 대북특사가 필요하다"면서 "대북특사는 박근혜 정부 한 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맞섰다. 또 심재권 의원은 "(남북이) 만나서 사진을 찍는 것만으로도 지금과 같은 엄혹한 상황에서 의미가 있다"고 즉각적인 남북대화 재개를 촉구했고, 같은 당 원혜영 의원은 "김정은의 속마음을 알아내야 한다"며 특사 파견을 요구했다.

이에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지금 상황은 대화를 통한 협상으로 해결될 국면이 아니다"며 "우리가 대화를 요청할 경우 (북한이) 얼마나 진실하고 성실한 태도로 임할지 의문"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류 장관의 인식 전환을 촉구하면서 "장관과 우리의 대화가 안 되고 있다", "대화하는 것에 발발 뿔뿔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느냐" 등의 비판의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대북특사에 대한 류 장관의 부정적 입장이 거듭 확인되자 여야 의원들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나 미국 유력 인사의 대북특사 파견, 남북 장관급 회담 등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미국·중국과 협의해 반기문 사무총장을 특사로 파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고려할 만하다"고 거들었다. 또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전쟁 방지를 위해 미국 정부가 특사를 파견, 문제를 풀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기득한 귀환길. 개성공단 운영이 잠정 중단된 가운데 8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짐을 옮기고 있다.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도 형사처벌

권익위 '김영란법' 6월 제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가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을 경우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하도록 한 '공직자의 부정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일명 김영란법) 제정

안을 오는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8일 청와대에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제정안은 이 외에도 공직자가 사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작년 8월 이런 내용의 법

안을 발표한 뒤 입법예고까지 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를 비롯해 일부 부처가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보다는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이 법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미지수다.

권익위는 또 부패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보수편향 판결·김앤장 경력 논란

국회, 박한철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

8일 열린 국회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보수 편향' 판결과 대형 법무법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근무 경력 등이 논란이 됐다.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은 박 후보자가 '경찰 차박'의 서울광장 봉쇄와 인터넷·SNS를 이용한 선거관련 의사표현 금지에 합헌 의견을 냈던 점을 거론하면서 "헌법재판관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 후보자가 2010년 서울동부지검장 퇴임 직후 김앤장에 근무하며 4개월간 2억4500만원의 수입료를 받은 점이 논란이 됐다.

민주당 박병계 의원은 "공안검사 출신인 박 후보자는 민간인 신분이던 4개월마저 재벌과 외국자본에 충실한 김앤장에 근무했다"면서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헌법재판소 수장으로 적합한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박 후보자가 김앤장 근무시 비자금을 조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박 후보자의 건강보

험 납부액을 역산하면 국제청 신고액 등 3억5000만원으로 추정돼 실제소득 2억4500만원보다 1억원 이상 많다"며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했다.

진선미 의원은 "박 후보자가 검사 시절인 1987년 부산의 한 아파트를 담보로 선경그룹에서 1900만원을 빌렸다"면서 기업으로부터 '무이자 대출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의 전관예우 문제를 꼬집으면서도 전반적으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권한 갈등을 비롯한 현안 질의에 주력했다.

김희정 의원은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에 대해 "대법원장이 헌법의 최종해석을 담당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헌법 체계와 조화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함진규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하는 헌법소원의 심리기간이 너무 길다"면서 "위헌심판청구 심리기간을 지금보다 훨씬 단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기득한 귀환길. 개성공단 운영이 잠정 중단된 가운데 8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짐을 옮기고 있다.

'전라도 비하' 이효선 새누리 재임당

서청원 前대표 상임고문 위촉

새누리당은 8일 전라도 비하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어 한나라당을 탈당했던 이효선 전 광명시장과 '4·11 총선 공천현금 파문'으로 제명됐던 현기환 전 의원을 재임당시켰다.

또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특별당비를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를 상임고문에 위촉했다.

이에 대선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적절한 언행과 비리로 얼룩진 인사 그것도 친박(친박근혜)계 실세를 당 전면에서 복귀시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2006년 지역기관장들과의 오찬에서 "전라도 놈들은

이래서 목먹어"라고 발언해 당시 한나라당으로부터 탈당 권고를 받았다.

또 여성 통장들이 모인 회의 자리에서 "활발한 성생활을 위하여"라며 견배를 제의해 성희롱 논란을 빚었다.

현 전 의원은 친박계 인사로 지난해 4·11 총선에서 공천현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돼 제명됐다. 당시 현 전 의원은 현영희 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3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 조사 끝에 "현 전 의원에게 3억원이 전담됐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 동구 제-008호(동구 경제로 608-2504)

유)그랜드대부

최저이자
명품대출!

- ▶ 건물/상가 추가대출
- ▶ 아파트/주택 추가대출
- ▶ 전. 답/ 자동차 대출
- ▶ 명품중고 가방/시계 (보석,금,그림)

※ 자사대출/ 자유상환/ 수수료없음 ※
최저 월 1%~월 3% 최고 연 39% 이내

광주 동구 불로동 121번지 그랜드빌 116호
062)228-0114, 010-4601-8942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 KOREA since 2005

급매매

두암타운사거리 대로변

대지 495㎡ (150평)
건물 2205㎡ (667평)

지하1층	주차장
1층	치킨호프
2층	PC방
3층	독서실
4층	학원
5층	골프존
6층	주택

매매가격 25억
대출 10억
보증금 4억3천
현금인수 10억 7천만

대출이자 공제후 월 1,000만원수익
사정상 급매(가격절충가능)

상담 010-7570-7525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나주 혁신도시의 모든것 솔로몬과 함께 하세요!!

중심상업지역(위치최고·착한가격)

- 대지 1080㎡ - 매매가 24억5천
- 대지 1099㎡ - 매매가 24억2천
- 대지 705㎡ - 매매가 14억5천
- 대지 1200㎡ - 매매가 24억5천
- 대지 1080㎡ - 매매가 26억5천 외 다수물건

근린생활용지(위치최상·착한가격)

- 대지 688㎡ - 매매가 13억1천
- 대지 545㎡ - 매매가 10억7천 외 다수물건

점포주택용지(약 100필지 보유)
단독주택용지(약 80필지 보유)
나주혁신도시 인근토지 구함

나주혁신도시·남평강변도시 전문
솔로몬 공인중개사
(061)333-7077,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

대한공인중개사 사무소

- ◆상가건물◆
 - 오치동 대지 300㎡ 건물 733㎡ 월수익 380만원 (추가임대수익예상) 매매가 7억9천만 1억5천만, 용적 1억5천만
- ◆상가매매◆
 - 신왕동 첨단지구 110㎡ 월수익400만원 매매가 8억원 (보증금5천만 동차4억 원 이동통신점 임점예정)
 - 신왕동 첨단지구 66㎡ 호반주출입구 앞 아파트 주출입구위치 대로변 코너 건물 핵심상권 매4억원
- 분양
 - 용두동 첨단지구 1100여세대(대우상권) 주출입구 앞 1층 48㎡ (단지독점상권) 매5억444만원 매매가 2억6천만원
 - 용두동 첨단지구 1100여세대(대우상권) 주출입구 앞 2층 47㎡ (단지독점상권) 매 1억632만원(7천7백만원) -2구 좌반양가능
- 상가임대
 - 신왕동첨단지구 호반주출입구 앞 132㎡ 3층 보증금3000/월140만원(피아노 학원 미술학원 보습학원 영수학원 등 학원밀집지역(예상구역))
 - 신왕동첨단지구 호반주출입구 앞 132㎡ 4층 보증금3000/월120만원(대리점 학원 미술학원 보습학원 영수학원 등 학원밀집지역 예상구역)
- 상가주택매매
 - 신왕동 하남지구 1층점포3칸, 2층 투-쓰리(통3개) 3층복층상업지 월수익550만 매7억9천만
 - 월전동 통16개 1층점포, 월수익650만 매9억원

중랑공인중개사

- ♣부동산 구함
 - ☆.이마트 밀집지역 병의원 신축부지 약 250평 내외
 - ☆.지하철 운천역 인근 광충간 대로변 시육부지 150평 내외
- ♣대지.전.답.임야
 - ☆.광산구 동산동 학동마을 인근 전 5,400㎡(1,634평)
 - 매매가 평당9만9천원
 - ☆.서구 서해동 2차선 도로점 주거지역 답 12,522㎡(763평)
 - 매매가 평당150만원
 - ☆.광산구 송촌동 자연녹지 답2,988㎡(904평)
 - 매매가 평당60만원
- ♣.전원주택지
 - ☆.광산구 오문동7번 시내버스중점 전원주택지(전망좋은)전.2.436㎡(737평) 매매가 평당 27만원

충장로에 대형 건물 및 대형 매장 필요하신분 상담 환영합니다.

062-374-5945
010-3162-4989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뿐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에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룬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이었던 골라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시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X)228-1772, 011-802-2532
(광주은행 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대한공인중개사 사무소
010-8611-9009
(건축·부동산·여행·시행 상담)